

LG전자, 중남미 특화가전 공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 박차

‘이노페스트 2026 중남미’ 행사
신제품 정보·사업 전략 등 공유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LG전자가 현지 맞춤형 신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멕시코 칸쿤에서 ‘LG 이노페스트 2026 중남미’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LG 이노페스트는 주요 유통 고객들을 초청해 올해 신제품 정보와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지는 행사다.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중동·아프리카 이노페스트를 열기도 했다.

이번 이노페스트에서는 중남미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현지 특화 제품을 대거 소개해 거래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먼저 탑로드 세탁기(통돌이 세탁기)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 패턴을 반영해 중남미 고객의 신체 조건에 최적화된 신제품을 선보였다. 현지 고객의 평균 신장과 팔 길이를 고려한 인체 공학 설계로 고객이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고 쉽게 세탁물을 꺼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보인 핏앤맥스 냉장고는 제품과 벽 사이 틈을 최소화해 설치 공간



LG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중남미 주요 유통 거래선을 초대해 신제품 정보 및 현지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LG 이노페스트 2026 중남미’ 행사를 개최했다. LG전자 직원이 유통 거래선 고객에게 중남미향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대비 내부 용량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도시화로 인해 주거 공간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다.

빠르게 늘고 있는 현지 프리미엄 가전 수요를 겨냥해 복합형 세탁기 라인업도 늘렸다. 27인치(가로폭 기준) 위시컴보는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에너지 효율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일체형 세탁건조기 위시타워는 기존 24·27인치 라인업에 25인치 모델과 LCD 제어판을 적용한 27인치 제품을 추가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건설사 및 인테리어 사업자 등 기업 간

거래(B2B) 고객을 위한 빌트인 솔루션도 눈길을 끌었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SKS를 필두로, 중남미 현지 주거 트렌드와 공간 구조에 최적화된 빌트인 가전 패키지 등을 폭넓게 구성해 현지 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LG전자 중남미지역대표 송성원 전무는 “현지 고객의 생활 방식과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의 한 축인 중남미 시장에서 고객과 파트너사의 신뢰를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승부수 韓, LFP 등 기술대응 이목집중

BYD,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공개
9분만에 97% 충전... 세계 신기록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타개하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배터리 기술 강화로 주춤했던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는 지난 6일 9분만에 97%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6년 만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충전 속도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배터리 잔량(SOC) 10%에서 70%까지 단 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며, 9분이면 97%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20%에서 97%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온 대비 단 3분 차이에 불과하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1세대 대비 에너지 밀도를 5% 높이면서 충전 속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텐자 Z9GT는 BYD의 경량화 차체 기술과 결합해 동급 최고 수준인 1036km의 주행 거리를 실현했다.

배터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안전성도 확보했다. 내부 발열을 최소화하고 방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튬이온 고속 통로’와 ‘전방위 지능형 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안전이 친환기차의 진정한 사치’라는 BYD의 철학을 반영한 설계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중국 국가 표준을 상회하는 엄격

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고속 충전기술이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BYD는 이를 위해 ‘FLASH 충전기’를 함께 공개했다.

FLASH 충전기는 단일 커넥터 기준 최대 1500kW 출력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시스템이다. 여기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결합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BYD는 중국 전역에 2만개 규모의 FLASH 충전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26년 말까지 글로벌시장에도 해당 충전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BYD의 초고속 충전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충전 인프라 구축이 기술 보급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YD의 기술 혁신으로 한국 산업계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발표한 800V 전력 시스템 기반 E-GMP 플랫폼의 빠른 충전 속도와 월등한 가속 성능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E-GMP를 적용한 전기차는 350kW급 전력을 받아들이며 배터리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30분 내외에서 18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BYD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공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어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LG엔솔·삼성SDI·SK온)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LFP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박정원, 건설장비 ‘AI·무인화’ 전략 점검

(두산그룹 회장)

美 ‘콘엑스포 2026’ 현장 참여
“차별화 AI 기술로 시장 선도해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두 달 만에 다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건설장비 시장의 인공지능(AI) 기술 흐름을 점검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8일 두산에 따르면 박정원 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3~7일(현지시간)까지 열린 북미 최대 건설장비 전시회 ‘콘엑스포(CONEXPO) 2026’에 방문했다. 지난 1월 CES, 2월 국내 주요 사업장 방문에 이은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그룹 핵심사업 중 하나인 건설장비 부문의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

박 회장은 이날 두산밥캣과 두산모터를 부스를 방문한 데 이어 글로벌 경쟁사 전시관도 둘러보며 AI 기반 생산성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가운데)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엑스포 2026’ 현장을 찾아 두산밥캣의 미니트랙로더에 탑승해 스카트 박 두산밥캣 부회장(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두산

향상과 무인화 기술 상용화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건설장비 시장의 AI 기술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

냈다.

박 회장은 “건설장비와 작업 현장에 적용되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드웨어 기술력을 중요하게 여기던 건설장비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며 “오랜 업력을 통해 축적한 두산밥캣의 독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AI 기술을 내놓으며 건설장비의 미래를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두산밥캣은 ‘콘엑스포(CONEXPO) 2026’에 참가해 AI·전동화·자율화 기술이 집약된 소형 로더, 굴착기 등 30여종의 첨단 제품을 선보였다. 핵심 제품군인 소형 로더 라인업을 보급형 ‘클래식’과 고급형 ‘프로’로 이원화하는 브랜드 전략도 처음 공개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

프리미엄 시장 매출 점유율 54.3%

삼성전자가 2025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며 20년 연속 세계 선도 자리를 지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9.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6년 이후 2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Neo QLED, OLED, 라이프스타일 TV 등을 중심으로 매출 점유율 54.3%를 기록했다.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52.2%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선두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보르도 TV’를 출시하며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처음 올랐다. 당시 보르도 TV는 하단 스피커 배치와 곡선형 디자인, 붉은색 포인트 등을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한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후 삼성전자는 주요 기술 변화에 맞춰 제품군을 확대해왔다. 2009년에는 LED TV를 선보이며 시장의 세대 전환 흐름에 대응했고, 2011년에는 스마트 TV를 출시해 TV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 2015년 ‘더 세리프’, 2017년 ‘더 프레임’



삼성전자가 2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등 라이프스타일 TV를 내놓으며 인테리어 수요에도 대응했다.

화질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QLED TV, 8K TV, 마이크로 LED 등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TV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업계 최초 인공지능(AI) TV 출시를 기점으로 2025년에는 사용자 맞춤형 AI 플랫폼인 ‘비전 AI 컴패니언(VAC)’을 고도화해 지능형 TV 시장을 선점했다.

올해는 프리미엄 제품군을 더 넓히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빨강·초록·파랑) TV를 새롭게 확대하고, OLED와 Neo QLED를 포함한 프리미엄 라인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니 LED 등 보급형 제품군도 확대해 시장 대응 폭을 넓힐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D현대일렉, 북미 생산법인 2공장 착공

2억달러 투자... 생산능력 50% 확대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 생산법인 증설에 착수하며 북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6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위치한 북미 생산법인(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에서 제2공장 기공

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제2공장은 북미 생산법인 부지 내 2만9000㎡(약 88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2억달러를 투자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50% 확대하고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시험·생산 설비를 구

축할 계획이다. 공장 준공 이후에는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 생산법인은 현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제2공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올해 9월 완료 예정인 울산공장 증설과도 시너지를 내 북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